2016 간호계 주요 뉴스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시작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가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이며, 2013~2015년 제1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2016~2018년 제2기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 연구 진행 및 운영은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맡아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이다.

제1기 연구는 '가임기 여성건강 설문조사'로, 모듈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임신한 경우 임신초기 및 출산후기 모듈이 추가됐다. 모듈 1 설문조사에 간호사 2만613명이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근무환경과 작업적 노출, 식이와 영양, 임신과 불임, 청소년기 생활습

관, 임신 전·후기 건강상태 등이다.

간호협회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2기 연구에서는 '여성건강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전향적 추적관찰연구'를 하게 되며, 후속 모듈 5~7을 개발해 설문조사를 한다. 올해 모듈 5가 개발돼 모바일 및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채혈 및 임상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기존 모듈 2~4, 임신초기 및 출산후기 설문조사도 모바일로 구현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판결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0월 27일 나왔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올해 3월 28일 제출됐다. 청구인은 전문대학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헌법소원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대체 안된다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제처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2월 5일자로 받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의 근거가 201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고, 이를 근거로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2016 간호정책 선포식 … 5대 간호정책과제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2016 간호정책 선포식'을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했다.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 슬로건 아래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가 선언됐다.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등이다.

5대 중점과제별로 각 3개씩 총 15개의 세부과제가 발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3교대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로지침 마련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 확충 △전문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활성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의료취약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지역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체계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 출범

대한간호협회는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 발대식 및 워크숍'을 8월 26~27일 및 27~28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했다.

KNA 대학생 활동가는 간호대학생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미래 간호사 인재를 양성하고, 간호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기 KNA 대학생 활동가로는 공모를 거쳐 전국 110개 간호대학의 1~4학년 총 231명이 선발됐다. TV, 신문, 포털사이트,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을 모니터링해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보도나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한간호협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활동과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설치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자리에 간호 표석 1호가 설치된 것을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설치 기념 세미나 및 제막식을 12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세미홀에서 개최했다.

간호 표석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역사 뿌리찾기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은 지난 2008년 제32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공약사업으로 간호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간호역사서를 발간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 및 표석 설치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표석 설치 신청서를 2014년 11월 26일 제출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에서 심의한 결과 표석을 설치키로 결정됐다. 표석은 2016년 4월 19일 설치됐다. 위치는 서울 중구 정동 30-1, 정동길쪽 이화여고 담장과 정동교회 후문 사이다.

보구여관 내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원양성학교는 근대 간호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 여성교육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간호교육을 통해 근대 한국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의 구습을 떨치고 일어나 전문직 업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자리를 이동해 '보구여관 터' 간호 표석 1호 제막식에 함께 했다.

간호 표석 설치로 인해 간호 역사 및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간호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정동 일대를 역사탐방로 '대한제국의 길'로 조성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표석을 통한 간호홍보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초의 한글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한글로 된 첫 간호학 교과서인 '간호교과서'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간호교과서' 상·하권이 등록문화재 제658호로 등록됐다고 4월 6일 발표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한 고(故)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가 발간했다. 상권은 1908년, 하권은 1910년 출간됐다. 이번에 등록된 간호교과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이 대상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간호교과서'는 한글로 된 첫 간호학 교과서로 감리교인쇄소에서 출판됐다. 중국간호협회가 한문으로 번역 출판한 클라라 윅스(Clara S. Weeks)의 'Textbook of Nursing : Manual of Nursing'(1892)을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책은 총 39장으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Nurselife 널스라이프
make yourself comfortable

• Nurselife 주요 서비스

교육·생활 법률·노무상담, 인터파크 도서, 신한은행, 삼성화재, The-K손해보험, RNcard, SNcard

여행·문화 해외·국내·제주 여행, 렌터카, 워터파크, 콘도·호텔·리조트 예약, 공연 예매

RNzone 이벤트 참여, 설문조사, 쿠폰

RNshop 간호용품, 모바일쿠폰, FASHION & BEAUTY, FOOD, DIGITAL & LIVING 상품

MY KNA 회원 본인의 협회 가입 및 신고현황·회원이 받는 혜택·진행중인 이벤트 등 실시간 확인 가능

회원복지포인트 소멸 전, 꼭! 사용하세요~

대 상 2014년도 회원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회원 중 미사용 회원
시 점 2017년 1월 1일부터 순차 소멸
사 용 널스라이프 내 RNshop에서 모바일쿠폰 및 일반상품으로 구매 가능
사용방법 ① 널스라이프(www.nurselife.or.kr) 로그인
② MyKNA에서 포인트 확인
③ RNshop에서 사용

Point

소멸포인트의 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사용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널스라이프 포인트 사용약관 제4조(포인트의 소멸 및 유효기간)]
최종 미사용 포인트는 별도 적립 후, 대한간호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복지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Nurselife 널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Nurselife make yourself comfortable